

영화



오동진의 씨네카페

'짜패' 이어 '강적' '괴물' 등 화제작 줄줄이 개봉

세상은 온통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판이라지만 그렇다고 한국영화가 블록버스터로 맞서야만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관국에서의 생존 법칙은 다른 데서 찾아지는 법이다. 끌리웃이 나올 때는 다윗을 내보내라. 비록 작은 영화라 해도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영화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진정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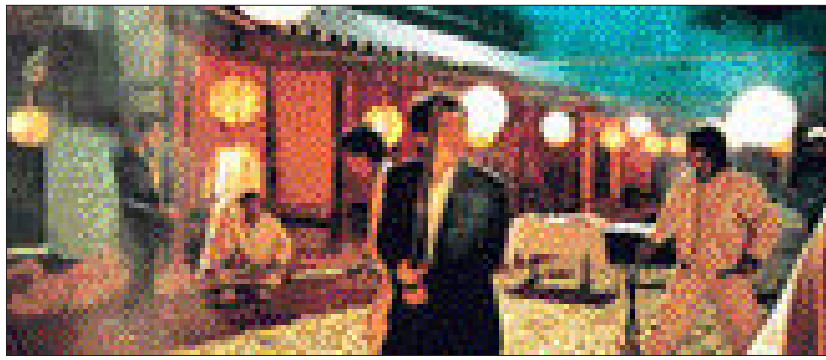
마침 그런 한국영화들이 줄줄이 개봉될 예정이다. 바닷속 수풀을 잘 뒤져 보면 진주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단지 그 노력이 부족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 시작해 '다빈치 코드'를 거쳐 '포세이돈' '엑스맨' '캐러비안의 해적' '슈퍼맨' 등으로 이어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파고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한국영화들이 잇달아 개봉됐거나 곧 개봉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각각 이미 개봉된 '가족의 탄생'과 '짜패'를 비롯해 '구타유발자들'(5월31일 개봉) '강적'(6월22일 개봉) 등은 모두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한 새로운 장르의 영화이거나, 만듦새가 탄탄한 영화들로 평단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기에 7월로 넘어가면 대형 블록버스터급에 해당하는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7월13일 개봉)와 봉준호 감독의 '괴물'(7월27일 개봉)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만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고 있다.



짜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판 붙자!



괴물

비열한 거리

인정받은 유하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든다. 청춘스타 조인성의 변신도 주목거리. 뒷골목 한 3류 광택의 비부하고 비극적인 삶을 그린다. 이미 공개된 예고편의 영상만으로도 뛰어난 미장센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적=조민호 감독. 박중훈 천정명 등 주연. 살인 누명을 쓴 한 남자의 사투와 그에게 인질로 잡힌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 퇴락한 형사역의 종견배우 박중훈의 변신에 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천정명 역시 이번 영화로 청춘스타의 이미지를 벗어났겠다는 의지.

인질이 인질범의 상황과 감정에 점점 동화되어가는 스텝홀름 중후군과 거꾸로 인질범이 인

질에게 정신적으로 동떨어지는 리마 중후군을 동시에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괴물=봉준호 감독.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 등 주연. 한강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의 가족이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괴물에 맞서 사투를 벌인다는 이야기. 이 괴물은 용산 미군기지에서 방출된 오염 물질에 노출된 생물체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탄생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웨타 스튜디오가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영화속 괴물의 모습은 놀라움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 웨타 스튜디오는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을 만든 곳이다.

영화 '괴물'은 최근 열린 제59회 칸영화제에 비경쟁으로 초청, 세계 평론가들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등 최근 우리영화 가운데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가족의 탄생'으로 스타덤 오른 신인배우 정유미

영화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주연 여배우만큼은 크게 주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주 개봉했던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 딱 그렇다.

개봉 성적은 아쉬웠지만 대신 신인배우 정유미(24)는 '대어'를 낚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정유미는 영화에서 봉태규에게, 못 낚자 모두에게 잘해 주는 '헤폰' 여자라는 오해를 받는다.

"내가 헤폰 여자라고요?!"

-영화속 당신은 정말 '헤폰' 여자인가?

▲그렇게들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달라요.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이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꼭꼭 닫힌 마음에서만 생각해 와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대요. 김태용 감독님이 그랬어요. 이 영화를 통해 사랑이나 결혼,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확 바꿔 보자구요. (웃음) 어쨌든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 때부터 당신을 두고 얘기가 많았어요.

▲물론 좋은 얘기들이겠지요? 근데 데뷔작은 사실 '사랑니'가 아녜요. 단역이긴 했지만 그 전에 김지운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 나왔거든요. 그 영화, 다시 보면서 잘 찾아 보세요.

-영화 데뷔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매우 평범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구요.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다닐 때 단편영화 작업을 비교적 열심히 했는데 그때 출연했던 '폴라로이드 작동법'이 어느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김지운 감독님 등등 여러분들의 눈에 들게 됐대요. 그리고 오디션 과정 등을 통해 캐스팅이 됐죠. '사랑니'도 그렇고 이번 '가족의 탄생'도 그렇고 작품 고르는 눈이 독특하다.

▲상업영화이긴 한데 동시에 상업영화답지 않은 작품을 고르려는 애기 시죠. 요즘 부쩍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건 영화들이 재미없다는 얘기가기도 한 건가요? 전 그 영화 시나리오 받아보고 굉장히 재미있어 했는데- (웃음) 아직 작품 고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다만 나 스스로부터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의 영화를 하고 싶어요.

-정지우 감독과 김태용 감독을 비교하면?

▲두 분 모두 영화연기에 있어 저를 새롭게 눈뜨게 하신 분들인데요. 음- 정지우 감독님은 아싸 같고 김태용 감독님은 삼삼 같아요. 이 정도면 두분 모두 만족하실만한 대답인가요? (웃음)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해외 영화계 이슈

9.11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올리버 스톤 신작 '세계무역센터' 간서 일부 공개

9.11테러의 참사현장을 다룬 올리버 스톤 감독의 '세계무역센터(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20분짜리 축약본이 제59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외신들은 완성본도 아닌 20분짜리 데모필름을 본 전 세계 언론인들과 비평가들이 열렬한 박수로 스톤 감독에게 찬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영화는 뉴욕시 경찰 소속 소방관인 존 맥클린(니콜라스 케이지)가 새벽 3시 30분쯤 일어나 이른 출근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화면은 무역센터 인근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출근 직장인들을 보여주다가, 빌딩 숲 사이 하늘로 현대의 비행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바뀐다.

'세계무역센터'에는 예상과 달리

두 차례에 걸친 비행기 충돌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첫번째 충돌은 비행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두 번째 충돌은 주인공 맥클린이 거리에 있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를 통해 엄청난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맥클린은 동료들과 함께 무역센터 존 맥클린(니콜라스 케이지)가 새벽 3시 30분쯤 일어나 이른 출근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화면은 무역센터 인근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출근 직장인들을 보여주다가, 빌딩 숲 사이 하늘로 현대의 비행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바뀐다.

'세계무역센터'에는 예상과 달리 두 차례에 걸친 비행기 충돌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첫번째 충돌은 비행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두 번째 충돌은 주인공 맥클린이 거리에 있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를 통해 엄청난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공포에 질린 맥클린의 두 눈만을 클로즈업해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

스톤 감독은 9.11 당시 무역센터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중 매몰됐다가 생환한 실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이 작품을 만들었으며, 정치적 논쟁보다는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쟁을 다룬 '플레툼'이나 '세계 무역센터' 모두 수퍼영웅이 아니라 미국 노동계급의 영웅을 그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오는 8월 9일 전세계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매곡부동산, 동명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력키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동화마을(신도시건설), 여수지역,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